

후보지 못찾은 '광주 자원회수시설'

응모 요건 미달로 1차 공모 무산...사업 지연에 2029년 준공 불투명 다음달 29일까지 재공모...2030년 직매립 금지 따른 쓰레기 대란 우려

오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광주시가 추진 중인 '자원회수 시설(생활 쓰레기 소각장)'의 입지 후보지 선정 공모 사업이 응모 요건 미충족 등으로 재공모 절차를 밟게 됐다.

지역별 시민들의 유치 욕구는 높았지만 오는 2029년 준공 목표로 진행했던 1차 공모 절차가 무산됨에 따라 최소 수개월간의 사업지연이 불가피하고 2030년 공식 가동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지난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4차 입지 선정위원회는 1차 공모 신청한 6곳 모두 응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60일간 자원회수 시설 입지 후보지를 재공모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지난 4월 2030년 시행되는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건립하는 자원회수

(소각) 시설 입지 후보지를 공모했다.

광주시 확인결과, 공모 안에는 후보지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었지만, 공모지 6곳 모두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공모에는 동구 선곡동, 서구 매월·서창동, 남구 양과동, 북구 장등동, 광산구 연산동이 지원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3240억원을 들여 소각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관련 공모 절차를 추진해 왔다.

2016년 12월 상무소각장 폐쇄 이후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소각장이 없는 탓에 2030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새로운 자원회수시설을 구축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이번 재공모 기준도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시설 규모 하루 650t, 부지면적 6만6000㎡ 이상(자연녹지지역 기준) 확보할 수 있고, 주변 거주 세대주 50% 이상 동의를 얻도록 했다. 기존 신청 지역은 물론 새로운 곳도 응모할 수 있다.

시는 특히 이번 재공모에선 1차 공모 때와 같은 '응모 요건 미충족' 사례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응모지역 접수 즉시 신속하고 철저하게 현장 조사에 돌입하고, 업무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

자칫 재공모로 인한 사업 지연이 장기화하고, 적합한 사업지조차 찾지 못할 경우 2030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쓰레기 대란'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재공모 결정으로 오는 2029년까지 준공 일정을 맞추기엔 빠듯한 상황"이라면서 "이미 입지선정위원회와 사업 용역업체 선정 등 기본적인 사업 절차는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시청 앞 불 밝힌 성탄 조명 연말연시 시민에게 온기를 전할 크리스마스 조명이 광주시청 앞을 밝히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30일 시청 행정동 앞 잔디광장에서 '크리스마스 스윙' 점등식을 열고, 높이 12m, 길이 49m 크기 아치형 구조물인 '빛고를 무지개'에 1500여 개 조명을 단 은하수 별빛을 연출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양에 '고효율 친환경 전기강판 공장' 준공

포스코, 내년까지 9242억 투입 전기차 600만대 규모 설비 구축

포스코가 광양에 2024년까지 9242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600만대 규모의 전기강판 생산설비 구축에 나섰다.

전기강판은 전기 및 자기를 응용한 기기에 사용되는 철강제품이다. 포스코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기차 구동모터에 사용되며 에너지손실을 최대 30% 줄여주는 고효율 무방향성 전기강판 생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9일 포스코가 고효율 친환경 전기강판 공장 1단계(15만)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1단계 준공으로 고온열처리설비, 냉간압연설비, 세정코팅설비 등 연간 15만 규모의 전기강판 시설을 갖췄고, 오는 2024년까지 15만 규모 시설을 추가해 30만 생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전기차 차체 고강도 경량화 강판인 기가틸 100만 생산체계 구축에 이어 고효율 전기강판까지 광양 포스코에서 전문적으로 생산하게 되면서 친환경차 소재 중심지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선거와 후보자 토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4〉 지병근 조선대 법사회대학장

후보자 토론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할 때 1960년 실시된 미국 대선에서 케네디와 닉슨 간 TV토론회가 자주 언급되곤 한다. 닉슨보다 선거인단을 84명 더 확보했지만 열세에 놓였던 케네디가, 전국 득표를 차이가 불과 1%p였던 박빙의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TV토론회에서 그가 보여준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유권자들이 매료됐기 때문이라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거의 모든 민주 국가에서 TV로 생중계되는 후보자토론회는 선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의 장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공군을 동원해 막대한 선거비용이 소요됐던 합동연설회가 폐지된 후 TV토론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됐다.

지난해 2월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지상파 3사가 공동주관해 생중계한 대선후보자토론회의 함께 시청률이 39%에 이른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선거에서 TV토론회가 얼마나 중요한 과정으로 자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TV토론회를 비롯한 후보자토론회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선거관리의 핵심 과제가 된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2004년 중앙과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해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대담·토론회와 정책토론회를 주관하도록 한 이유 또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후보자 간 갈등과 선거의 공정성 시비가 재연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 TV토론회의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이에 임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은 누가 참여하고, 누가 사회를 보는지, 어떤 쟁점을 다루는지, 그 형식과 내용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후보자토론회와 관련된 공정성 시비는 대체로 패럴 구성과 방송 시간대와 관련이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는 5인 이상 국회의원을 보유하거나, 직전 선거 3% 이상 득표한 정당을 초청해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방송사들은 주요 정당 후보들의 토론회는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군소 정당 후보들의 토론회는 심야 시간대에 편성하곤 한다.

선거가 민주적 책임성의 기제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정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후보자 간 경쟁 과정에서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후보자토론회 역시 이에 부합해야 한다. TV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들은 자신의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능력과 책임감을 보여줄 수 있다. 유권자들은 직접 대면하지 못하지만, 후보자들의 표정과 발언을 관찰하며 그들의 인품과 정책을 평가하고 선거에서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된다. 아울러 TV토론회는 선거 결과의 '불확실성'을 강화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기도 한다.

임박한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토론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제도 및 운영 방법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선거가 민주적 책임성의 기제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정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후보자 간 경쟁 과정에서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후보자토론회 역시 이에 부합해야 한다. TV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들은 자신의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능력과 책임감을 보여줄 수 있다. 유권자들은 직접 대면하지 못하지만, 후보자들의 표정과 발언을 관찰하며 그들의 인품과 정책을 평가하고 선거에서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된다. 아울러 TV토론회는 선거 결과의 '불확실성'을 강화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기도 한다.

임박한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토론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제도 및 운영 방법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광주 AI스타트업, 도약의 꿈 '성큼'

AI사업단, 기업성과보고회...우수 기업 성공 사례 주목

광주 AI(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이 신기술을 기반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대신생기업(유니콘) 도약의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지난 30일부터 이틀간 진도 솔비치 리조트에서 열리는 AI 스타트업 성과보고회 'AI Boom-up Day'에는 AI 창업 및 기업 성장 지원에 대한 주요 성과 발표 및 관계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성과 보고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추진중인 AI집적단지 조성사업의 창업지원 받고 있는 광주 AI스타트업들이 참석해 혁신적인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기업 간 협업을 논의하는 기회의 장도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보고회에서는 'AI 제품 서비스 상용화 지

원 사업', 'AI 스타트업 창업 경진대회' 등을 통해 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주)에스오에스랩', '페르소나AI', 'AI 민트' 등 우수 AI 기업들의 성공 사례가 발표돼 주목을 받았다.

'(주)에스오에스랩'은 3D 라이다 기반의 지능형 실의 무인 주차 안내 시스템 개발 및 사업화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공항, 기차역, 대형 쇼핑몰 등에서 주차 공간을 빠르게 식별하고 유도하는 스마트 주차장 솔루션을 제공하게 된다.

김준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AI 스타트업의 창업 성장을 지원하고 AI 융합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광주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나와, 세계가 주목하는 AI-밸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